

건강인集團, 건강검사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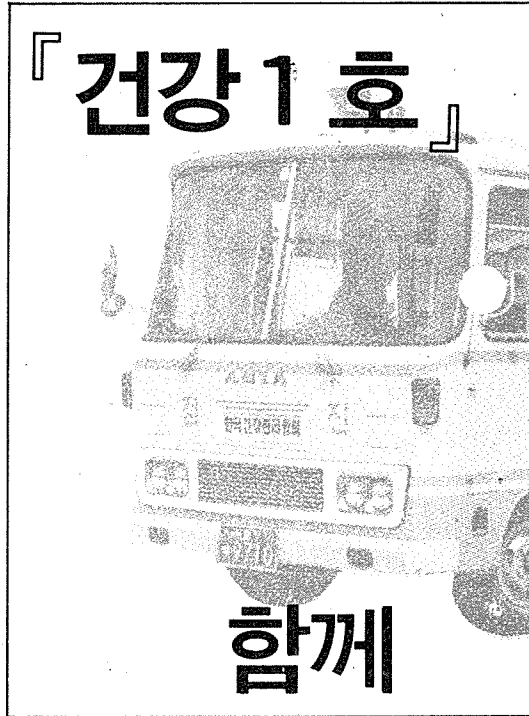
출동되는 각종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과 갖가지 기구에 대해서 행여나 빠진 것이 있는지 거둬 확인하며 수검자 한사람 한사람을 대할때 과연 어떻게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검사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육받는등 온종일 부산스러웠다.

이상은 최초로 건강1호와 함께 현장검사를 떠나기 전날에 검사에 대비한 준비상황 이었다.

배우 또는 가수가 대공연을 앞두고 긴장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리허설을 한다고 하는데 마치 그와같은 심정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동안 건강관리사업의 주력이 되는 건강1호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주무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직, 간접으로 후원해주신 기대에 부응해야하며 또한 우리 자신들이 그간 공들여 쌓았던 노력과 정성이 결실되기 시작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한 건강관리사업은 그 후 많은 기관과 단체를 순회하면서 보건계몽과 섭외및 현장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겪고 느낀 몇가지 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각급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되



는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시중행동을 같이하는 양호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고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고 고마움을 느낀다.

어느 여자중학교에 나갔을때의 일이다. 그 선생을 처음 대하는 순간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다.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와 정감이 넘치는 표정에서 가히 천사를 대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早期発見, 早期치료를 목표로 각職場을 뒀다.

와

■ 환경 용 뒤면서

언제나 현장에 나가면 검사진행에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사항이 많은데 검사장소 설치 및 각종장비의 가동에 따른 전기배선작업 그리고 수검인원 동원과 나라비선 줄의 질서유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뒷바라지와 심부름을 다해주시길 뿐만 아니라 식사와 커피대접은 물론 심지어는 귀한 잔치집에서나 볼수있는 우리고유의 음식(떡)을 꾸밈하게 내놓으먼서 권한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교장선생님택에 경사가 나서 보내온것을 우리들에게 주신것이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착한 며느리같은 것을 느끼게했다.

그 양호선생님의 배려에 힘입어 그 날은 지칠줄 모르는 힘이 솟아나서 일이 쉬웠던것 같았다.

한번은 어느지구 의료보험조합 산하 사업장 건강관리사업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매스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우리사업 전반에 걸쳐서 취재하여 보도하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해진 날자에 맞추어 대비를 했는데 방송국사정으로 며칠 연기하게 되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취재일정을 통지해 주겠다고 해서 맘놓고 다음스케줄을 진행했는데 돌연 방송 취재반이 검사소로 나온다는 연락이 왔다.

1차 연기한 바로그다음날 오전10시경에 연락이왔고 오전 11시30분에 취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 사업을 널리 알리는 가장좋은 홍보 기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탓할 촌각의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인력은 거의 현지출장 검사중에 있고 준비해야할 일은 많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정신없이 동문서주하며 준비하여 정해진 시간에 큰차질없이 태세를 갖추었는데 비교적 잘 되었다는 후평이 있었지만 죽을 곤욕을 치른 결과였다.

한번은 모지구 의료보험조합 산하에 종업원이 수천명되는 한사업장에 계몽 및 섭외차 나갔는데 기관장이 하간부들이 건강검사의 취지와 절차등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종업원의 건강관리책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종합검사라고 말은 하면서도 영세한 사업장이라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수혜자 부담의 검사표를 걱정한다.

기왕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본인 부담이 아닌 방법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대당한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면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검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놀란것은 예상외로 유소견자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것이 질환간장 쪽이고 그 다음이 고혈압 심장질환등 순환기계통의 질병이고 자궁암, 당뇨병, 빈혈, 신장질환등의 순으로 어림 잡을 수 있는데 통계학상의 의의를 가질수 있는 정도의 물량을 처리한 뒤에 집계를 해보면 더욱 놀라운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대상을 집단으로 검사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건강이라는 말의 모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방은 저축”이라는 건강 1호 차량의 뒷편 표어는 실감을 더해준다.

대부분 비전염성만성질환의 특징이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상당히 중증이 된 뒤에 비로서 발병을 하기때문에 예방의 차원에서 본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초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군 단위에 해당되는 지역에 까지 검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전염성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편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병예방의식은 그들보다 못미치는 수준에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서 질병이 발견되면 어떻게할까 하는 생

각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점은 여성중에 수가 많은 것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검사 과정상 현장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있고 가검물을 이송하여 지부 부속의원에서 혈청분리하여 검사에 들어 가는것이 있는데 각종 생화학검사 항목이 여기에 속하며 정도 관리 및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내부검사 팀과 합세하여 모든 검사를 완료하게 되는데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보람에 피로도 잊은채 내일의 출장계획을 구상하면서 귀가길에 오를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쉽게 느끼며 기대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각종 비전염성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몇가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방면의 환자가 더욱 증가 할것은 자명한 일이고 따라서 전염병에서 비전염성만성질환쪽의 사망자 수가 많아진 그 판도가 계속해서 지속 될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현재 여건에서 이사업이 본래도에 오를때까지 공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해 본다.

(필자=健協 서울지부 검사소장)

생활과학 ●

㊤ 페인트 칠을 다시할때

● 먼저 표면에 묻은 먼지 그늘 같은 것은 도료가 잘 묻지않게 하므로 2~3%의 비눗물이나 0.5%의 가성소다액으로 깨끗이 닦고 잘 말린다.

● 바람이 세고 먼지가 많이 나는 때나 비가 와서 습기가 많은 때는 피한다.

● 너무 작은솔을 쓰면 고르게 칠이 안되므로 장소에 따라 큰 솔로 칠한다. (너비 5cm 정도의 것)

● 처음에는 상하좌우로 세게 문질러 대충 바르고 2차로 솔을 가볍게 눌러서 솔자국이 남지 않게 일정한 방향으로 칠한다.

㊤ 페인트시의 요령

익숙하지 못한 솜씨로 칠을 할때 흔히 이웃부분까지 칠하는 수가 많다. 특히 창틀을 칠할 때는 유리에 묻어 신경이 쓰인다. 이럴때는 칠하기 전에 유리에 비누를 문질러 놓고 칠을 바른 후에 스폰지에 물을 적서 닦아 내면 쉽게 유리에 튀어 묻은 페인트가 없어지며 유리창도 깨끗이 닦을 수 있다.

㊤ 페인트는 얇게 칠한다

페인트칠을 할때는 칠이 고루 잘 묻힌것 같아도 마른후에 자세히 보면 빠진 것도 있고 지나치게 많은 칠이 묻혀진 곳도 많다.

페인트는 얇게 칠하면서 고루 고루 칠하는게 기술이며 마른후에 다시 얇게 칠하는 것이 요령이다. 이렇게 하자면 페인트를 알맞게 묽게 하여 솔질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농도가 너무 끈끈할때는 신나를 더 섞으면 된다.